



목포환경운동연합 마음 가득

목포환경운동연합

(우) 58753 목포시 해안로249번길 33-1
Tel 061)243-3169 Fax 061)244-7345
E-mail mokpo@kfem.or.kr
홈페이지 <http://mp.ekfem.or.kr>

 '목포환경운동연합' 검색하세요 🔍

 '목포환경운동연합' '좋아요' 눌러주세요

 @mokpokfem 팔로우 해주세요

발행일 2023.04.12. 제134호



3월11일(토) 목포환경운동연합 서한태 박사님 5주기 묘소참배

/ 목 / 차 /

02 총회 소회
03 특별 기고 1
04 특별 기고 2
05 환경기념일

06 청소년 독후감
08 회비 납부
09 회계 보고
10 활동 보고

11 회원 기고
14 동호회 소개
15 신입회원 안내 /
환경 단상

16 광고 / 캠페인

정기총회! 그 부족함을 고합니다

“너무 추웠다”

“너무 시간이 길었다”

“그래서 질문도 의견도 말하기가 어려웠다”

우리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처음 개최한 대면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 전한 총회 출석 담이었습니다. 또,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고, 준비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운 회원들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다”라는 의견과 “회원 수가 600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회원 수에 비해 참석률이 저조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많은 시간과 품,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대규모 총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정관상 의결권이 있는 운영회원만으로 총회를 치르고, 따로 회원의 날을 정하여 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과 그러나 “총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기 때문에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임원과 집행위원들의 인사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었고, 특히나 사업 계획의 사전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아픈 지적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2023년 정기총회는 이렇듯 부족하고 다양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더 세심하고 깊이 있게 헤아려서 내년 총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다짐과 함께 회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최대 과제는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합니다. 매번 집행부의 한계를 느낍니다. 회원님들이 채워 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제안과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홈페이지와 밴드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하여 그곳에서 회원님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항상 바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여기고 있는데도 실제로 회원님들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유와 공감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겠지요. 이 또한 오로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어느새 정기총회를 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 임원과 집행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러서 2023년 사업을 준비하고 실천해서 내년 총회 때는 집행부가 좀 더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회원님들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3년 3월 27일

공동의장 최송춘, 강덕수 올림



▶ 사진_ 민택기 작가,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모든 이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환경운동가 고 서한태 박사님 5주기를 추모하며

글 | 조상현 소모임 녹색연구회

내가 서한태 박사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88년 6월쯤이다. 선배로부터 지역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만간 만들려는 환경단체에 상근할 사람을 찾고 있다며 같이 만나 뵙자고 했다. 그렇게 오거리 한 식당에서 처음 뵈는데, 그 자리에서 박사님은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흰 가운데 목에는 청진기를 걸고 환자에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했던 나는 속으로 ‘이분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맞나?’ 생각했었다. 그리고 1988년 8월 8일 밤 8시 목포녹색연구회가 창립됐고, 나는 녹색연구회 간사로 일하며 이후 30년 동안을 거의 날마다 박사님을 만나 뵈었다.

박사님께서서는 병원에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신문에 난 환경 관련 기사를 오려서 대학노트에 붙이시는 일이었다. 1984년 1월부터 시작해 2016년 10월까지 신문 스크랩을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다. 그 분량이 대학노트 91권에 달한다. 여기에는 환경 관련 기사 뿐 아니라 각종 공문, 성명서, 행사 초청장 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 가끔 이 노트들을 볼 때마다 박사님의 환경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서 박사님께서서는 신문이나 책, 자료 등에서 얻은 내용들로 복사물을 만들어 늘 품에 품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읽어보라며 건네주셨다. 나중에는 새해 연하장도 물관리 일원화 등과 같이 박사님의 ‘뜻’을 펴는 내용으로 채우셨다.

박사님께서서는 토론문화를 매우 중요시하셨다. 그래서 녹색연구회 창립 한 달 뒤부터 매월 ‘시민토론의 광장’을 열어 지역의 환경문제, 나아가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하셨다. 위정자는 일을 크게 벌이기 전에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 토론문화가 뿌리내릴 때라야 비로소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늘 강조하셨다. ‘시민토론의 광장’은 나중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목요대화마당’으로 이어졌다.

생각해보면 서 박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회운동을 시작하셨던 게 아니다. 그저 지역유지로서 봉사단체나 체육회, 동문회 일에 적극적이셨던 분이 1983년 목포시민의 식수원인 영산강에 공해업소인 주정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하고 운동에 나서면서 50대 중반에 환경운동가의 치열한 삶이 시작된 것이다. 어떤 현안이 생기면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셨다. 그렇게 얻은 해법 중 하나가 ‘물관리 일원화’였다. 영산강 싸움을 하면서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을까 생각 끝에 물관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고 ‘수도공사’ 설립 국회 청원 등을 선구적으로 진행하였고, 이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 박사님이 타계하시고 불과 3개월 뒤인 2018년 6월 8일 마침내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이 공포 시행되었고,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최종 마무리됐다. 비록 박사님께서서는 그토록 갈망하던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를 보시지 못하고 타계하셨지만 1983년 영산강 싸움으로 촉발된 물관리 일원화가 30여 년이 지나서나마 끝내 결실을 얻게 된 것을 보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케 한다.

박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지 어느덧 5년. “모든 이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우렁찬 목소리로 외치시던 박사님의 건배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나무야! 친구야!

글 | 이승우 감사

창문 너머 희뿌연 먼지들 틈으로 남산타워가 보인다. 빌딩 숲 사이로 무표정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신호등 소리가 울리자 허겁지겁 뛰듯이 신호를 건넌다. 걸어서 출·퇴근 하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느라 도통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눈길을 줄 곳이 없어 길바닥도 쳐다보고 건물 옆에 조그만 화단도 살펴보며 걷는다. 무표정한 얼굴들에서 도시 사람들의 외로움을 보았다.

황량한 거리에도 봄날이 왔다. 텅 빈 거리에서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다. 작고 푸른 새싹들이 생동감 넘치는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니들이 고생이 많다”라는 듯이 인사를 하면 “니들은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인간들이 밟고 다니는 길바닥에 태어나서 힘들지 않니?”라고, 주고받는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1년간의 서울 살이 내내 한결같이 나를 위로해 주고 친구 먹어준 식물과 나무들 덕분에 많은 위안을 얻었고 덜 외로웠지 싶다. 그때가 퇴직을 3년여를 남겨 두고 있을 즈음이었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를 화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무하고 친구 먹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빙고!! 오랫동안 맞추지 못한 마지막 퍼즐을 맞춘 듯한 희열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무들의 친구가 되기로 했으니 당연히 나무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막연한 물음으로 고민 중에 있을 때 비전문가들의 부정확한 진단, 약제 오남용 등으로 수목 피해 발생이 심각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8년 6월에 수목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탄생했음을 알게 되었다.

퇴직 후 인생 2막의 천직이 될 것이라는 직감으로 망설임 없이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식물 관련 학과와 무관한 비전공자들은 학점은행에서 기준 학점을 취득하고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라는 요건을 맞추기 위해 6개월에 걸쳐 학점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취득한 관련학과 학사학위로 “식물보호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고 1년여의 노력으로 필기 1차 합격, 실기 2차 불합격하여 다음 회에 실기 2차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취득한 식물보호기사 자격으로 하여 전남대에서 “나무의사 양성 과정”을 3개월에 걸쳐 수료하고 최종적으로 나무의사 자격 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하였다.

퇴직 1년여를 남기고 마지막 단계인 “나무의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였다. 결과는 5회 1차 불합격, 6회 1차 불합격이었다. 2번의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끈기있게 도전한 결과 세번째인 2022년 7회 시험에 1, 2차 합격하여 감사하게도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4년에 걸친 노력으로 소망하던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올해 “녹색을 켜다 온그린 나무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등산복 차림에 벙거지 모자를 쓰고 나무를 치료하고 있는 나무의사를 만나게 되면 “니들이 고생이 많다”라는 따뜻한 격려와 미소를 기대한다.



“나무를 건강하게 해요”

안전하고 적합한 약제 처방으로 나무의 건강을 지켜 우리 집과 함께 사는 자연을 보호해 줘요.



“나와 가족을 지켜줘요”

나무의사 처방 없이 하는 방제는 토양, 나무 식재 상황 등 정확한 진단 없이 이뤄져요. 의사와 약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약은 내 가족에게 위험하듯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위협해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예요”

나와 가족의 삶을 맡긴 집을 품고 있는 자연 숲, 나무의 위험은 가족의 위험이 돼요. 나무 의사 전문 진료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 건강해진 나무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요.

식목일의 역사

4월 5일은 식목일입니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山地)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 나무의 소중함이 더욱 크게 다가옴 되새기며 우리나라 식목일의 역사와 각국의 식목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식목일의 처음 유래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신라는 문무왕 10년부터 8년간 당나라와 싸워서 문무왕 17년(서기 677년) 2월 25일에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문무왕 17년 2월 25일(양력 4월 5일)을 기념해 나무를 심었던 것이 식목일의 처음 유래라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시대의 기록

고려 시대에는 풍수사상의 영향 아래 수도가 있는 개성 송악산의 땅기운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주로 바람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땅기운이 약한 곳에 나무를 심어 보호해 주려는 비보(裨補) 조리를 통해 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산림 강화

조선시대에 경국대전이라는 법에 나무를 심고 가꾸는 조항을 넣어 백성들의 나무 가꾸기를 강조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했어요. 나무 심기를 강조한 이유는 바다 쪽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물리칠 병선과 당시 국가경영에 필요한 세금이었던 쌀 등 공물의 운반에 필요한 선박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제1회 식목일 행사

<제1회 식목일 행사>는 1946년 4월 5일 서울시의 주관으로 사직공원에서 거행됐으며 산림청은 1975년 제30회 식목일부터 상징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종전대로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으며, 지역별로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의 “국민 나무 심기 기간”을 지켰습니다.

세계의 식목일

세계 식목일의 원조는 미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1872년 4월 10일에 제 1회 식목행사를 가졌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J.S모턴의 생일인 3월 22일을 ‘Arbor Day 나무의 날’로 정해 주의

축제일로 정한데서 유래했고 지금은 4월 마지막 금요일 미국 산림청과 National Arbor Day Foundation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매년 4월 25일을 ‘Tag des Baumes 나무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목 기념 행사는 1952년 4월 25일에 있었고, 매해 4월 사람과 경제를 위해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목일은 매년 3월 12일로 ‘식수절(植樹節)’이라고 부르며 국토의 녹화를 촉진하고 인류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한 명절로, 원래 식수절은 3월이 아닌 4월 초였으나 생전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장했던 손중산(손문)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세상을 떠난 3월 12일로 정했습니다. 넓은 국토의 기후 조건에 따라 지역단위 산림축제와 기념행사를 조건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5월 4일을 ‘녹색의 날’인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4월 29일이 녹색의 날이었으나 2007년부터 현행과 같은 5월 4일로 날짜가 바뀌었다. 자연을 아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풍부한 마음을 기른다’는 취지라고 축일법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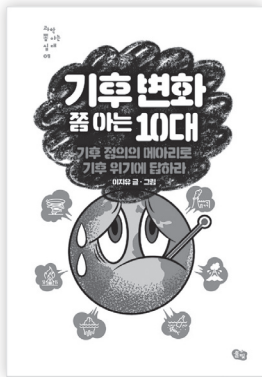
이밖에 호주 7월 30일, 브라질 8월 21일, 네덜란드 3월 21일, 뉴질랜드는 6월 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9월 1일부터 7일간을 식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무심기를 통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막는 작업은 우리 후손들에게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자각하고 항상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기후변화 쫓아는 10대 기후정의의 메아리로 기후위기에 답하라』를 읽고

글 | 장이진 청소년 회원



[기후 변화 쫓아는 10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어? 예전에 사람들은 산업발전에 온 힘을 쏟았어.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맞이했고 그 결과 인류는 지금처럼 발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인류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벚꽃과 개나리의 개화 주기는 점점 빨라지고 여름에는 점점 더워질까?

과학자들은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지구가 변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느꼈대. 사실 지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거야. 기후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기후는 쉽게 한 지역의 30년 이상의 강수량, 기온, 습도 등의 평균값을 말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름에는 강수량과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은 기후인거지. 기후는 오랜 시간 그 지역의 평균값이나 그 지역의 날씨를 예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기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 이제는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기온만 높게 변한다 해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기후가 변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 지구에 태양이 빛을 비추면 빙하가 그 빛을 반사하여 지구의 온도를 낮춰. 그러나 이제 그 빙하가 녹고 있어 해수면이 상승한 거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기체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올라가 오존층을 막고 있으니 지구에 반사되던 빛이 반사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구에 남아 있는 거야. 이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걸 조금 큰 영역에서 생각해보면 그 결과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것이고 그게 기후변화가 심각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

기후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어. 온대기후, 한대기후, 열대기후 등이 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3가지 종류의 기후가 남반구와 북반구를 따로 놓고 보았을 때 같은 위치에서 관측되는 거야.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햇빛을 잘 받는 적도 위치에서는 열대기후 적도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온대기후, 한대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어 놓은 선에 불과해. 그러니까 비교적 적도에 먼 곳에 위치한 대한민국에도 언제까지나 온대기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

한 지역의 기후가 열대기후에서 사막의 대표적인 기후인 건조기후로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사막화의 시작은 물이 부족한 가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가뭄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 자연재해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 가뭄인 지역들의 기후를 조사해보면 몇 년 전부터 강수량이 부족해지는 기상학적 가뭄,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부족한 농업적 가뭄, 물의 양이 줄어드는 수문학적 가뭄,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회학적 가뭄이 있어. 그러나 이 4가지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천천히 왔다가 느리게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 대한민국은 이미 수문학적 가뭄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야. 잘 모르겠다고? 맞아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야. 아직 사회학적 가뭄까진 오지 않았거든. 그렇지만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기후가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서 계속 변한다면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가뭄으로 고생하게 될 거야.

지구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사하라 사막에도 원래 아랍 해라는 큰 강이 있었어. 아랍 해가 유지되고 있어서 사하라 지역은 사막화가 되지 않았어. 아랍해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 것은 사하라 지역 사람들의 농업을 위해서였어. 관개 농업을 통해 농사를 짓자 비는 오지 않고 물을 사용하는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 아랍 해의

물의 양은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어. 일정수준을 지나고 사하라 지역은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아는 사막 지역이 된 거야. 재밌는 것은 사하라 지역 사람들이 아랍 해로 농사를 지은 기간은 3~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대. 그러나 지금 사하라 지역을 다시 되살리려면 적어도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주된 기체는 이산화탄소가 유명하지만 사실 다른 기체들도 많아. 그 중 메탄은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는 능력이 이산화탄소의 20~30배 정도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염화불화탄소도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기체 중에 하나인데 오존에 구멍을 뚫고 수십 년 동안 기체가 공기 중에 남아 있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 이산화질소는 150년 동안 분해되지 않은 채로 공기 중에 남아있어 메탄의 절반 정도의 온난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지구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로 지구의 온도를 낮추어 기후변화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예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에서 탐보라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어. 화산 폭발로 인한 다양한 화산재 때문에 몇 년 동안 농경재배가 어려웠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탐보라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내려갔다고 말했어. 그런데 지구의 온도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화산 폭발로 온도를 낮추려면 1년에 10번 이상 탐보라 화산규모의 화산이 폭발해야 하는 거야. 하지만 화산폭발로 낮춰진 지구의 온도는 몇 년 지나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 효과는 몇 년 뿐이야.

기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국제단체 IPCC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라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가 되어 하고 연평균 기온이 1.5°C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어. 전 세계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아주 작은 일들부터 바꾸고 있어. 예를 들어 마트에 갈 때 당연히 장바구니를 챙기고, 포장할 때는 집에서 다회용 용기를 가지고 가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말이야.

지금까지 지구에 5번의 대멸종이 있어 많은 생물들이 멸종됐어. 지금까지 대멸종의 이유는 소행성의 충돌이나 화산폭발로 인한 기후변화야. 그런데 과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지.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니 인간이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지구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냐의 문제야.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도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시위를 통해 기후변화의 문제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움직임에 동참했어. 지구는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다음세대, 그 다음 세대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지.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해. 이제부터라도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사진 출처: 연합뉴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은 기후변화가 지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과 청소년, 시민 글로벌 커뮤니티.

2018년 8월 스웨덴의 십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스웨덴 의회 밖에서 항의하기 위해 학교 수업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후에 세계적인 현상으로 성장하여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행동했다.



[사진 출처: 청소년기후행동 제공]

국내 첫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을 맞이하여, 청소년기후행동 소송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 빠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0년 3월13일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후변화로부터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희비 남부

2023년 2월 ~ 2023년 3월

(유)세라돌/(주)보해양조/(주)수다방게스트하우스/(주)현성건설/게스트하우스 달꾸메/농협은행(주)전남본부/담을꿈협동조합/대신아이시티(주)/더오래뜰/만인계마을기업/목포대성신협/목포아이쿱생협/영암일보(주)/코롬방제과점/특허사무소 다임/해바라기치과의원/감의갑(장미선)/강덕수/강동호/강명곤/강복수/강석원/강선애/강성희/강영규/강영두/강제석/강종량/강창원/강철수/강화심/고경석/고광업/고광진/고광현/고성철/고윤혁/고정화/공남은/공석준/박신영/박재구/구봉선/권수한/기재명/김가영/김경미/김경숙/김경애/김경완/김경주/김경희/김공경/김관오/김광미/김광수/김광호/김근대/김근순/김기범/김기봉/김기철/김나영/김대중/김도관/김도형/김동욱/김동호/김말금/김맥아/김명숙/김명중/김명화/김명희/김무영/김미영/김미정/김미화/김민국/김민규/김민지/김병욱/김병철/김보현/김상훈/김선남/김성길/김성륜/김성진/김성희/김수린/김수미/김숙자/김순미(벨로아)/김순영/김승현/김시연/김애숙/김애자/김양준/김영남/김영민/김영범/김영식/김영운/김영제/김영준/김영현/김영호/김영희/김옥/김옥미/김완석/김용구/김용진/김용기/김원이/김원중/김유경/김유현/김윤임/김윤희/김은경/김은미/김은희/김일용/김장원/김재영/김재혁/김정민/김정훈/김정희/김종국/김종수/김지수/김지숙/김지희/김진형/김진희/김창식/김창훈/김철주/김탁/김태근/김태수/김태웅/김판삼/김학주/김행연/김현곤/김현숙/김현우/김현정/김형기/김형애/김혜정/김홍안/김화영/김환석/김효정/나광봉/나양명/나연운/나천귀/남명숙/남주연/노애란/노천우/다겸/류금순/류미현/류수영/류용철/류재청/마홍식/모원종/목포연희네포차/무관/문보현/문성중/문승현/문원규/문정임/문지영/문호/문호산/민경관/민은주/박갑수/박경봉/박경서/박경양/박경재/박권철/박금단/박기남/박기철/박기훈/박대성/박대현/박동구/박동환/박문욱/박미덕/박미숙/박미정/박민규/박배선/박병구/박병삼/박상현/박선옥/박선하/박성수/박성영/박성욱/박성원/박성준/박성현/박세륜/박수정/박순미/박안섭/박영윤/박용/박용일/박용호/박원배/박유정/박유진/박윤길/박은숙/박은정/박은화/박은희/박재범/박재신/박재홍/박종수/박종위/박진/박찬경/박창수/박창우/박창현/박천웅/박최균/박필수/박현/박현/박현경/박현숙/박혜숙/박화진/박희성/방창식/배동희/배영식/백동진/백성숙/백재봉/변재영/봉문수/서경수/서병권/서연순/서영선/서영숙/서영욱/서재연/서정/서정만/서지영/서한배/선채원/설지연/성보석/성상훈/소혜인/손민원/손봉현/손철주/손현/송광훈/송다희/송두호/송미정/송영미/송영준/송정미/신경희/신동영/신용주/신현령/안만호/안명희/안정배/양덕수/양세영/양수민/양승희/양정호/양주동/양창숙/양판수/양현주/양한/양호식/염미순/오경섭/오민임/오수진/오숙향/오승원/오영출/오왕근/오재록/오하늘/오현자/오현주/우성주/우종식/위라겸/위준철/유경호/유영근/유영순/유영창/유원석/유은경/유은숙/유주환/유지원/유혜정/유효진/윤금봉/윤기현/윤남/윤동준/윤선영/윤성광/윤성수/윤승희/윤원희/윤인수/윤종민/윤종일/이경매/이경석/이경아/이경택/이광봉/이교이/이금래/이금희/이기식/이동훈/이명숙/이명희/이미순/이방수/이보라미/이봉섭/이상엽/이성호/이성환/이송환/이수/이승용/이승우/이승익/이승한/이승희/이영숙/이용기/이용자/이용철/이용현/이우주/이원기/이은주/이일호/이재경/이재우/이재이/이재현/이정석/이정식/이종민/이종환/이주환/이준화/이지우/이지현/이진아/이진형/이창일/이창현/이충완/이학숙/이현숙/이현숙/이현진/이현철/이형광/이형님/이형숙/이형완/이혜령/이혜용/이화/이효빈/이희은/임경숙/임성기/임성진/임은아/임은희/임지현/임진옥/임창욱/임태삼/임혁/임효철/장근천/장동춘(박민아)/장복천/장영미/장욱진/장유선/장이주/장이진/장지은/장진실/장향금/장희웅/전경님/전남실/전대열/전명희/전상보/전성욱/전성철/전양수/전준수/전준영/전현호/전형숙/정경순/정고운/정대호/정동욱/정미라/정병이/정상문/정성배/정세영/정수민/정순용/정승원/정연수/정연우/정연희/정영주/정영호/정우영/정유나/정유미/정윤나/정윤정/정인성/정인숙/정재근/정종하/정중삼/정지범/정창권/정철희/정태연/정현찬/정형권/정홍조/정효준/조광운/조미정/조상현/조소연/조애련/조애순/조영규/조영인/조옥현/조완오/조용만/조원기/조이환/조재문/조정양/조종배/조창익/조철제/조혜향/조호빈/주성은/주훈석/지이화/진선화/진성필/진지연/진택근/차나람/차선미/차용만/차용훈/채희준/최경/최경만/최경수/최국진/최규광/최근욱/최명숙/최명희/최비호/최석원/최선국/최선희/최성국/최송주/최순재/최승운/최승희/최양선/최영란/최영섭/최영숙/최영철/최예화/최완수/최용선/최원석/최은기/최은병/최은주/최이문/최정관/최정삼/최정훈/최진상/최철수/최태욱/최현영/최호봉/최화병/최환석/최효/추연성/하영성/한양규/한은섭/한추희/허진홍/홍갑석/홍선기/홍성혁/홍세영/홍정우/황선주/황순원/황순진/황형수/황혜미

2023년 2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6,808,000
	단체회비	315,000
	소 계	7,123,000
후 원 금		426,500
기타수익		0
이자수익		0
예 비 비		0
차 입 금		300,000

*후원금
- 캘리그라피그룹 자몽 276,500원

2월

당월수입금	7,849,500
전월이월금	1,569,682
합 계	9,419,182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250,000
	조사연구	0
	홍 보 비	181,400
	행 사 비	230,000
	연대사업	561,440
소 계	1,222,840	
회 의 비	총 회 비	92,000
	위원회비	47,000
	소 계	139,000
인 건 비	급 여 (활동가 2인)	3,938,870
	복리후생비	1,122,400
	상 여 금	0
	퇴직적립금	552,532
소 계	5,613,802	
업무추진비	출 장 비	226,200
	활 동 비	20,000
소 계	246,2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480,000
	통신광열비	870,560
	소모품비	0
소 계	1,350,560	
기타	환 경 기 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10,890
	보험료	100,000
	원천징수분	0
	지급 수수료	516,875
소 계	727,765	
당월지출금	9,300,167	
통장 잔액	119,015	
합 계	9,419,182	

2023년 3월

수 입		
항 목		구 입
회 비	개인회비	10,248,000
	단체회비	355,000
	소 계	10,603,000
후 원 금		150,000
기타수익		3,000,000
이자수익		0
예비비		0
차입금		4,000,000

*기타수익
- MPU, IUU사업 300만원

*2월 CMS 3차분 3월 2일 입금됨

3월

당월수입금	17,753,000
전월이월금	119,015
합 계	17,872,015

지 출		
항 목		금 액
사 업 비	교육사업	669,000
	조사연구	40,000
	홍 보 비	30,000
	행 사 비	119,800
	연대사업	473,440
소 계	1,332,240	
회 의 비	총 회 비	1,572,000
	위원회비	177,000
	소 계	1,749,000
인 건 비	급 여 (2월 미지급분 포함)	9,241,470
	복리후생비	1,564,630
	상 여 금 (임금 상승분 소급적용)	555,360
	퇴직적립금	554,199
소 계	11,915,659	
업무추진비	출 장 비	776,500
	활 동 비	160,000
소 계	936,500	
사무관리비	비품구입비	0
	수 선 비	0
	도서인쇄비	51,060
	통신광열비	364,620
	소모품비	30,000
소 계	445,680	
기타	환 경 기 금	100,000
	세금과공과금	8,680
	보험료	100,000
	원천징수분	0
	지급 수수료	579,155
	차입금 상환	300,000
소 계	1,087,835	
당월지출금	17,466,914	
통장 잔액	405,101	
합 계	17,872,015	

- 01일(수) 시내버스 집회 목포시민 행동의 날 / 시민 민원 현장 점검(갯바위 근린공원: 용해 생태체험 시설) /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IUU 온라인 회의
- 02일(목) 동호회 간담회 / 함께사는 길 읽기 모임
- 03일(금) 목포시 관광과 면담
- 06일(월) 제27회 정기총회 회원 안내 웹자보 제작·홍보
- 07일(화) 목포환경운동연합 카카오톡 채널 개설 /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내방 면담 / 정기총회, 집행위원모집, 경품후원, 소식지 설문조사 안내 웹 포스터 제작 / 총회 자료집 초안 작성
- 08일(수) 목포시 가족센터 업무협약서 초안 작성 /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오거리문화센터) / 다이어트 모임
- 09일(목) 회계 감사
- 10일(금) 제251차 집행위원회 / 소식지 우편 발송준비 / 연산초등학교 석면 모니터링 / 사업감사
- 13일(월) 소식지 회원 우편 발송 / 목포시 소각장 현장평가단 추천
- 14일(화) 세월호 회의 / 시내버스 대책위 회의 / 소식지 설문조사 회원 문자 발송 / 운영회원, 신규가입 회원선물 우편 발송 / 10차 총준위 회의 / 6.15 정기총회
- 16일(목) 정기총회 안내 웹포스터 제작, SNS 게시 / 소각장 현장 참여단(1박 2일)
- 17일(금)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개편 온라인 회의
- 20일(월) 흑산공항 건설 반대 회의 / 총회 안내 회원 연락 / 운영회원 연락
- 22일(수) 정기총회 준비 / 상생나무 이취임식 참여 / 프리하당 기획 회의
- 23일(목) 제27차 정기총회
- 24일(금) 전남환경운동연합 국처장, 의장단 연석회의(장흥)
- 27일(월) 에코리딩 동호회 모임 / 시내버스 기자회견-목포시 밀실행정, 박홍률시장 규탄 / 정기총회 감사 인사 회원 문자 발송
- 28일(화) 전국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목포스트릿탄소파이터 활동가 간담회



▶ 2월 1일 시내버스 집회 목포시민 행동의 날



▶ 2월 2일 동호회 간담회



▶ 2월 23일 제27차 정기총회



▶ 2월 27일 목포시내버스 기자회견

- 03일(금) 국립공원의 날, 무등산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공항 반대 집회
- 04일(토) 에코트레킹 모임
- 05일(일) 지구를 지키는 발걸음 모임
- 06일(월) 운영회원 추가 모집 이미지 제작, SNS게재 / 영화 “다음 소희” 관람 안내 회원 문자 발송 / 서한태 박사님 5주기 묘소 참배 웹자보 제작, 카톡 발송
- 07일(화) 환경강사단 교안, 교구 논의 회의 / 소식지 편집회의 / 영화 “다음 소희” 관람신청자 단체 문자 / 운영회원 모집 회원 문자 발송
- 08일(수) 지도위원, 자문위원 연락 / 세계 여성의 날 전남 여성의 날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기념식 참석 / 다음 소희 영화 공동상영 / 문화예술특화사업 회의
- 09일(목) 다이어트 모임, 영상 촬영 / 낭주중 환경교육
- 10일(금) 함께사는 길 우편 발송
- 11일(토) 서한태 박사님 5주기 묘소 참배
- 13일(월) 서한태 박사님 5주기 추모 회원 문자 발송 / 안도, 고금 폐각 조사
- 14일(화) 환경부 한화진 장관 사퇴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영산강유역환경청)
- 15일(수) 목포시 기후환경과 면담 / 다이어트 모임 / 문화예술특화사업 회의
- 16일(목) 프리하당 기획 회의 / 낭주중 환경교육 / 제252차 집행위원회 / 진도 팽목항 석탄재 매립 반대 승리보고 대회 / 비전특위 회의
- 17일(금) 전국 국처장단 회의(군산) / 세계 물의 날 캠페인 웹 포스터 제작
- 20일(월) 세계 물의 날 캠페인(동부시장) / 환경강사단 교안 작성 / 해상풍력 인식증진 사업 온라인 회의
- 21일(화) 환경강사단 회의 / 목포시 가족센터 무지개 봉사단 교육(환경)
- 22일(수) 세계 물의날 캠페인(목포역) / 해양보호구역(MPA)와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IUU) 목포 워크숍
- 23일(목) 시내버스 대표자 회의, 공영제 제안, 시민 대상 거리 선전전 / 고하도 현장 답사, 플로깅 / 오월에서통일로(가칭) 공동 추진위원회 회의(YMCA)
- 24일(금) 목포시 가족센터 업무 협약 / 환경강사단 회의
- 25일(토) 세월호 부스지킴이
- 27일(월) 에코리딩 모임 / 운영회원 추가모집 안내 문자 발송
- 28일(화) 소식지 원고 수정 / 지구の日 행사 협조요청 공문작성(유달동장)
- 29일(수) 다이어트 모임 / 환경강사단 교안 수정
- 30일(목) 목포시 탄소중립간담회 웹포스터 제작(4.14)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환경교육 / 낭주중 환경교육 / 비전특위 워크숍
- 31일(금) 전남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신학기총파업대회 연대 방문 / 소식지 원고 편집



▶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무등산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흑산공항 반대 집회



▶ 3월 8일 다음 소희 영화 공동상영



▶ 3월 14일 환경부 한화진 장관 사퇴촉구 전국 기자회견



▶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캠페인

영산강과 영암호 그리고 금호호 이야기1 - 폐그물

글 | 박수정 회원

안녕하세요. 신입회원 박프로 박수정입니다. 사람들은 ‘박프로’라고 하면 요즘 제일 보편적인 스포츠인 골프 프로를 생각하시더군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물낚시꾼입니다. 민물낚시 세계에서 ‘박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소식지에 글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추어 환경운동회원이 ‘낚시’라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느껴 왔었던 생각을 담았습니다. 진정성이 전달되면 좋겠다 싶어 글을 용감하게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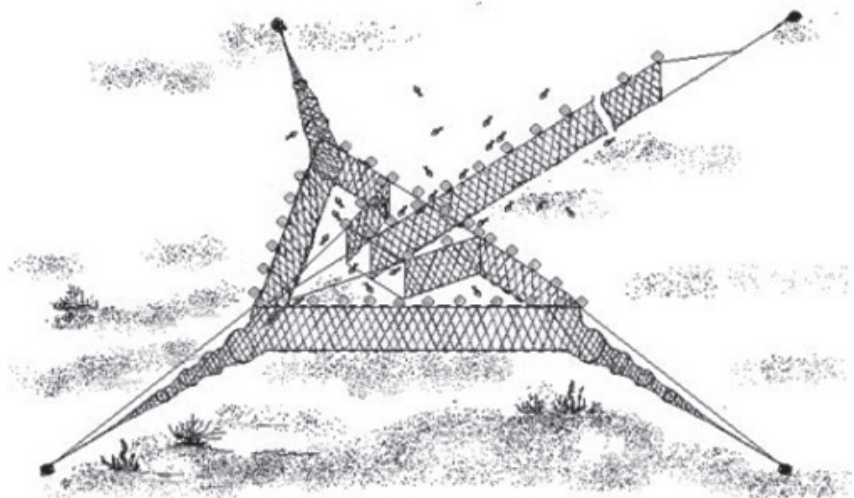
사람들은 바다에만 어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관련된 환경 생태계도 바다를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해양 오염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민물에도 어부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물장어를 잡으시거나 민물새우를 채취하시는 분들도 어부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민물 어부분들과 관련된 민물 생태계의 파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극소수가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공공연히 우리 주변에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감히 같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폐그물입니다.

민물 어부들이 잡는 어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붕어, 잉어, 가물치, 민물장어, 메기, 토하, 백새우, 각새우 등과 같은 토종 어종부터 베쓰나 블루길 같은 외래 어종까지 다양한 어종을 그물을 사용해서 잡아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시장에 내다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으로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면 민물고기를 사고, 요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매우 건전한 경제 활동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첫번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부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물의 종류는 삼각그물-[정치망 그물: 어부들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물]입니다.



삼각그물 ▶
(정치망 그물: 어부들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그물)

저수지나 수로에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화살표 모양의 검은색 그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들이 벽을 타고 움직이는 습성을 이용한 그물이지요. 그물에 물고기가 차면 어부들이 거두어 갑니다.



어부들이 정치망 그물을 쓰고 나서 폐그물을 걷어가야 그물에서 폐사하는 물고기가 없고, 눈으로 저수지나 수로를 보았을 때 쓰레기가 떠 있는 듯한 이미지가 없어질 텐데 어부들은 새로운 정치망을 설치하는 데에는 “열심”이나 폐그물은 아무렇지 않게 “방치”를 합니다.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버립니다. 이로 인해 폐그물에서 폐사하는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눈에 흉물스럽게 보이는 삼각그물 쓰레기가 우리가 아껴야 하는 저수지나 영암호, 금호호 등 지류들에 흉물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단, 영암호, 금호호 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 곳곳에 무방비로 자행되는 인간의 테러입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폐그물 수거 사업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행되지 못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입니다. 폐그물 수거 사업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어도 어떠한 실적도 없다면, 사실상 없는 정책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누구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니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정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입한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그 민원을 제기하는 단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은 물론,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줄이 늘어나다가 튕기지 못하고 끊어지듯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순간 그곳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생명체라 함은 물고기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 또한 생명체이기에 살기 어려워지고,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민물 생태계가 건강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공인중개사이자 꿈꾸는 여행가 그리고 프로 낚시꾼이라 불리는 박프로가 씁니다.



▶ 박프로 (공인중개사, 여행가, 프로 낚시꾼)

에코토피아 비긴스(ECOTOPIA EMERGING)

돈을 위한 환경, 환경을 위한 돈

글 | 우성주 회원

*ecotopia : ecology (생태계)와 utopia(이상향)가 합쳐진 명칭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과거는 서한태 박사님께,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현재는 의장님께,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에코리딩에 물어보라!! 환경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물음에 대답을 고민하는 에코리딩의 3월 독서토론 책 에코토피아 비긴스(원제 ecotopia emerging)

미국의 작가 어니스트 칼렌 바크의 소설 <에코토피아 리포트>(1975)가 그 어원이다. 미국에 탄생한 인구 1,500만 명의 독립국 '에코토피아'는 자연과 화합하여 살아가는 유토피아를 그린 소설(에코토피아 리포트)에서 힌트를 얻었으며, '에코토피아 비긴스'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1518년),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1726년)처럼 플라톤의 '아틸란티스'에서 영향을 받은 소설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성과 인종, 빈부,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작가 어니스트 칼렌바크

중부 펜실베이니아의 전원 지역에서 성장하였으며,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을 졸업하였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 출판부(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에서 과학과 예술, 영화에 관련된 책들을 편집했다.

이 밖에 대표 저서로 『버펄로를 찾아와라! Bring Back the Buffalo!』, 『우아하고 쉽게 살아가기 Living Cheaply With Style』, 『생태학 개념어 사전 Ecology: A Pocket Guide』, 『에코토피아 비긴스 Ecotopia Emerging』가 있다. 현재 79세인 그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범위에 살면서 글쓰기와 환경 관련 강연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두 개의 퇴비 통에 직접 만든 비료로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즐기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

에코토피아 비긴스는 에코토피아를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평등과, 자연의 평형, 거대자본에 맞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인공들의 이야기이다.

같은 철학적 메시지의 '걸리버 여행기'의 저자 조너선 스위프트의 이름과 같은 주인공 루 스위프트의 스위프트 전지(에너지 해방)가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이다.

◀ 주요 키워드 ▶

- #평등 : 다른 종을 멸종시키지 말라. 성별, 나이 종교나 인종적 태생의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 #소프트패스(soft path) : 태양력, 풍력과 같은 자연 에너지
- #스위프트전지 : 혁신적 기술 가치의 보편적 공유
- #농업사회 : 생물학적 건강이라는 근원적 문제를 에너지 순환을 통해 이룩함
- #미니멀 : 크고 복잡한 공동체가 배우는 데 오래 걸리는 시간을 작은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빨리 파악할 수 있음

소설 속 에코토피아(ecotopia) 위치 :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북부 일부를 기반을 두는 독립국



새롭게 (사)목포환경운동연합의 벗이 되어 주신 분들입니다. 환영합니다. (2023.02.01.~2023.03.31 / 가나다 순)

- 공석준(김영현)
- 김오심(임경숙)
- 민은주(자발적)
- 박선하(자발적)
- 박주원(장유선)
- 박찬경(최송춘)
- 서지영(임경숙)
- 우대열(강덕숙)
- 이양진(김영호)
- 이주환(이현승)
- 이형님(이은주)
- 장옥진(김용진)
- 전성욱(최송춘)
- 조정양(임경숙)
- 차나람(김말금)
- 최선희(이은주)
- 최지선(이경아)
- 황순원(자발적)



목포환경 운동연합 신입회원 한마디

김오심 “환경보호 우리 모두를 위한 소중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은주 “반갑습니다. 환경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목포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목포 환경운동연합에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양진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

이형님 “네. 반갑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신입회원이 된 이형님입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최지선 “안녕하십니까? 최지선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어 뒤늦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현명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박선하 “따스한 봄입니다. 화사하게 핀 벚꽃이 환경운동연합에서의 회원으로 출발하는 저에게 인사를 해주는 느낌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원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중학생 박주원입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행동하는 환경지킴이가 되고 싶습니다. 제일 환경 지킴이~ 목포 환경지킴이로서 제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으로 함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0명 회원시대로!

* 회원가입 문의 사무국(061-243-3169)



한 장의 사진, 하나의 단상



고하도 인근 해변을 지키던 큰 나무가 해풍에 쓰러졌다. 땅속 굴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뒤엉켜있다. 뿌리까지 감싸고 도는 비닐, 스티로폼, 밧줄,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가 우리의 현주소가 같아 보여서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4월 21일 오전 10시에 고하도 해변 쓰레기 줍기를 진행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사무국 061-243-3169



포마린

혼다V6, 야마하V6·V8
커맨드 링크 전문점



대표 최은기
전화 : 061-272-0118 / 010-9492-4207
전남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21-11

FOUR MARINE
SINCE 1994




해바라기 치과

원장 이해송

전화 : 061-279-2886 / 010-2654-2875
전남 목포시 청호로 172, 3층 해바라기치과 (산정동)

편집디자인 및 인쇄 : E&D 이앤디 TEL:2278-6046(4선) www.eanddpr.com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을 위한 주민조례 서명운동

지난해 12월에 시내버스 회사의 가스비 미납으로 두 달간 버스가 멈췄고, 많은 시민이 불편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버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발안 추진을 위해 시민 대상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 기후위기 대안이 되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시민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권리, 공영노선 지정과 운영, 교통요금 지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명 기간 : 2023년 4월4일~7월3일까지
- 목표 인원 : 18세 이상 선거권 있는 주민 3천명

1. QR코드로 주민조례 청구 참여하기
주소 (<https://url.kr/8hk3lz>)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주민조례 청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회원 참여 캠페인

안녕하세요.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참 쉬울 것 같지만,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기에는 어렵고 불편한 게 환경 실천 운동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비닐 사용 줄이기, 일회용품 안 쓰기 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를 비롯한 내 주위의 사람들과 지 함께 하는 환경운동 실천 캠페인을 시작하려 합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날이죠.

첫 번째 캠페인 “물티슈 안 쓰기”입니다.

쓰으 한번 닦고, 버리니 무척 편리합니다. 빨아서 쓰는 제품도 있지만, 물티슈에 사용되는 원단은 화학 섬유로 플라스틱입니다.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티슈 대신에 행주, 손수건, 걸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회원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캠페인 추천해 주세요. 밴드, 문자로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소식지 광고 후원받습니다. 광고비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문의] 사무국 061-243-3169